

국어에서의 ‘지금’ 과 상

염재일*†

홍익대학교

Jae-Il Yeom. 2012. ‘Cikum’ and Aspects in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16.2, 43–65. In this paper, I attempt to define the semantics of *cikum* ‘now’ in Korean. To define it precisely, we need to look at how it interacts with different aspectual classes of verbs and with the semantics of tenses and aspects. In doing this we need to define the semantics of tenses and aspects. Here we run into the question of whether *ess* is a tense marker or an aspect marker. I assume that it is ambiguous. There are still cases where it is not clear whether *ess* is used as a tense marker or an aspect marker in an actual sentence. I discuss two such cases: one in which it is used with verbs like *tochakha* ‘arrive’ which have no salient resulting states, and one in which a state verb is used with *cikum-kkaci* ‘until now’. The semantics of *cikum* can be def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ess* is a tense or an aspect. By discussing *ko iss*, which is an imperfect marker, I conclude that *cikum* means $\lambda P \lambda i [u \subseteq i \wedge P(i)]$, that is, a relation between a set of times which include an utterance time and a set of properties of times. (Hongik University)

Key words: *cikum*, *ess*, past tense, perfect marker, imperfect marker *ko iss*

1. 서론

우리말에서 ‘지금’이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상과 관련하여 형식적 의미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지금’과 함께 쓰이는 각종 상적인 표현들이 제대로 해석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 같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의 형식적 의미 정의과 이것이 국어에서 나타나는 각 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관찰적으로 ‘지금’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보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시역인가 시점인가? 노대규(1979), 서정수(1976) 등은 ‘지금’이 발화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음에서 도착하는 사건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일어나

* 이 논문은 2010 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세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으로 논문의 오류를 줄일 수 있었으며, 논지를 좀더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남아 있는 오류는 모두 저자의 몫이다.

†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학교 영어영문학과, E-mail: jiyjeom@hongik.ac.kr

는 것으로 이해된다.

- (1) 철수가 지금 도착했다.
- (2) 철수가 지금 도착한다.

그런데, ‘지금’이 발화시점이라면, 발화시점은 발화에 의하여 정해지고 그 시점에 도착하여야 하므로 ‘있’을 사용하거나 ‘(느)ㄴ’을 사용함으로써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달리 이해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 발화시점이 아니라 시역으로서의 발화시간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전화를 걸면서 ‘지금 뭐하고 있냐?’는 질문을 잘 한다. 그러면 ‘전화 받고 있다’고 답하기도 한다. 하지만 농담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은 발화시간을 포함하는 더 확장된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이다.¹

이후 이기용(1976, 1980) 정문수(1981) 등이 지금은 발화시간을 포함하는 어떤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은 시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까지’라는 표현은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다음과 같이 ‘지금’이 ‘까지’와 함께 사용된다.

- (3) 철수는 10시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 (4) 철수가 지금까지 기다렸다.

10시는 절대로 시역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에 ‘지금’이 쓰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지금’이 시점을 나타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래 문장에서 ‘오늘까지’라고 하면 ‘오늘’에 속하는 시간 중에 밤 12시라든지 아니면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시간 등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시간을 시점으로 정하게 된다.

- (5) 철수는 오늘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이것은 ‘지금’ 외부적으로는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면서 내적으로는 여전히 시역을 가지면서 그 안의 시점을 정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 그 시점이 문장 내의 다른 요소에 의하여 시점이 결정되어야 하기도 한다.

- (6) 철수는 지금까지 행복했다.
- (7) 철수는 지금까지 행복하다.

‘ㄴ’을 썼을 때에는 발화시간 이전까지이고 그것을 쓰지 않았을 때에는 발화시간 이후의 어느 시점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지금’이 이 두 다른 시점을 포함할 수 있

¹ 그리고 발화시간 자체도 시점일 이유는 없는 것이다. 어쩌면 발화시간도 내부적으로 포함관계를 가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녹화영상을 보면서 ‘저 자동차가 범규를 위반한 것은 지금이 아니고 지금이야.’라고 말할 때 두 번의 ‘지금’을 해석하기 위하여 두 발화시간이 필요하지만, 문장 전체를 해석하기 위해서도 발화시간이 필요하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발화시간은 어떤 표현이나 문장이 발화되는 짧은 시간으로 간주하겠다.

으려면 시역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외적으로는 시점처럼 행동하지만, 내적으로는 시역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 시역을 가지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8) 철수는 아까는 2분간 어지러웠는데, 지금은 1분간만 어지러웠다.

여기서 ‘지금 1분간만’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는 시간이 최소한 1분은 포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분명히 시역이어야 한다. 그러면 시점인지 시역인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만약 ‘지금’이 하나의 의미, 즉 시역을 가리킨다면 시점 해석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금’의 의미를 일관되게 정의할 수 있는가? 국어에서 (1)에서처럼 ‘지금’이라는 표현과 ‘있’이 잘 어울린다. 물론 다음 문장과 같이 ‘있’이 결과상태를 나타낼 경우 그것을 상표지로 간주한다.

(9) 철수가 지금 입원했다.

이 문장은 철수가 지금 입원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사건이 ‘지금’의 시역에 있지 않으므로 ‘있’을 상표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문장은 또다른 의미가 있는데, (1)과 같이 발화시간 직전이면서 ‘지금’이라는 시역 내에서 입원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경우 ‘있’이 시제 표지인지 상 표지인지하는 것은 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 자체로는 결정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국어에서의 다른 상들의 해석을 일관되게 설명하려면 어떤 가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본 논문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국어에서 ‘있’이 상이나 시제냐의 논의가 많지만, 이것은 형식의미론을 가정할 경우 ‘있’이 어느 한쪽의 의미만 있다고 가정하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형식의미론에서 시제가 해석되는 방식과 상이 해석되는 방식은 다르다. 염재일(2010)과 Yeom(2010)에서 형식의미론에 입각해서 ‘있’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형식의미론의 표준적인 가정에서는, 상은 상황특성을 시간의 특성으로 바꾸는 함수로 이해하고, 시제는 시간의 특성 함수에 시간의 값을 주는 역할을 한다. 상이 시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고 시제가 상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개개의 ‘있’의 사용에 대하여 시제냐 상이냐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

그리고, ‘있’이 상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도 동사의 상적 성격에 따라서 해석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언어에서나 관찰되는 공통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있’이 상이라고 가정하든 그렇지 않든 ‘있’의 중의성은 가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히 상은 시제가 아니라고 가정한다고 해서 ‘있’의 중의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단, 이런 점에서 ‘있’의 시제로서의 쓰임과 상으로써의 쓰임을 구분한다고 하여 문법 자체가 복잡해지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의 기본적인 생각은 ‘있’이 시제이든 상이든 ‘있’이 사용된 문장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의미를 고려하고 그것이 ‘지금’의 사용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며,

이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의미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논의의 편의상 ‘있’의 여러 의미 중 어떤 의미로 쓰인 경우 ‘있’을 시제로 보고 다른 의미는 상의 한 의미로 보는 것이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표준의 형식의미론에서 어느 한 의미만 가정할 경우 ‘있’의 모든 의미를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존재양화인가 전칭양화인가?

(10) 철수가 지금 도착했다. (= (1))

(11) 철수가 지금 즐기고 있다.

첫 문장에서 ‘지금’이 시점일 수 없는 이유는 ‘지금’이 시점이면 발화시간이어야 하는데, ‘-ㅆ’을 사용하여 발화 시간 이전에 도착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금’이 도착한 시간을 포함한다면 시역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이 가리키는 시간의 일부의 시간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그러나 둘째 문장에서는 ‘지금’이라는 시역 내내 즐기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² 즉 어떤 경우에는 ‘지금’의 시역 중에서 동사에 의하여 나타나는 상황이 일부 있으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시역 내내 상황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두 문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2) 철수는 오늘 도착했다.

(13) ?? 철수는 오늘 즐기고 있다.

철수가 지금 도착했으면 철수가 오늘 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철수가 지금 즐기고 있으면 철수가 오늘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동사구의 상적인 특징 혹은 상표지의 의미와 관련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지금’의 의미가 어떻게 설정되고 이것이 문장의 나머지가 나타내는 상적인 특징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2. 기본 상과 기본 시제의 의미 설정

2.1 ‘지금’과 사건 / 상황시

문장의 의미를 형식의미론에 입각해서 해석하려면 우선 문장의 구조를 설정하여야 한다. 문장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² 한 심사자가 (11) 문장에서 ‘지금’이 시점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지금’을 사용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시점을 나타내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시점이면 말하는 시점이어야 하는데, 말은 시간이 걸리므로 결국은 길이의 문제일 뿐 시역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에서는 시역으로 해석된다고 가정할 때 전칭양화로 해석된다는 것이 논지이므로 논의 자체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

$$(14) [MP [TP [AspP [VP \alpha] \beta] \gamma] \delta]$$

$$(15) a. \llbracket [VP \alpha] \rrbracket^{w,u,a} = \lambda e \lambda w [\alpha'(e)(w)]$$

$$b. \llbracket [AspP [VP \alpha] \beta] \rrbracket^{w,u,a} = \lambda i \lambda w \exists e [R1(\tau(e))(i) \wedge \alpha'(e)(w)]$$

$$c. \llbracket [TP [AspP [VP \alpha] \beta] \gamma] \rrbracket^{w,u,a} \\ = \lambda w \exists i [R2(i)(u) \wedge \exists e [R1(\tau(e))(i) \wedge \alpha'(e)(w)]]$$

$$d. \llbracket [MP [TP [AspP [VP \alpha] \beta] \gamma] \delta] \rrbracket^{w,u,a} \\ = \exists i [R2(i)(u) \wedge \exists e [R1(\tau(e))(i) \wedge \alpha'(e)(w^*)]] \text{ (} w^* \text{는 실제세계)}$$

($\tau(e)$ 는 사건 e 의 시간, $R1$ 과 $R2$ 는 두 시간 사이의 관계, α' 는 α 의 의미)

동사구의 의미는 사건의 특성으로 이해된다. 상은 사건의 특성을 시간의 특성으로 변환시킨다. Partee(1984), Heim(1994), Kratzer(1998) 등은 시제를 대명사와 같은 것으로 해석하지만, 여기서는 시간에 대한 존재양화사로 해석하겠다. 평서법은 실제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서법이나 양태를 다루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위에 주어진 의미해석에서 가능세계는 모두 생략을 하겠다.

많은 논문에서 ‘있’이 시제인지 상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대개는 그 중에 하나이고 다른 의미는 화용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조를 가정할 경우 ‘있’이 시제가 되든지 상이 되든지 해야 하고, 그것이 상이면 시제가, 그것이 시제이면 상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제인 ‘있_T’과 상인 ‘있_{Asp}’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있었’은 ‘있_{Asp}’과 ‘있_T’가 결합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있’이 시제로 사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과거의 의미를 가진다.

$$(16) \llbracket \text{있}_T \rrbracket^{w,u,a} = \lambda P \exists i [i < u \wedge P(i)]$$

그러나 국어에서 상으로서의 ‘있’은 몇 가지 용법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하겠다.³

2.2 동사구의 상과 시간/사건 관계

앞절에서 논의한 대로 문장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상과 시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시제는 동사구가 가지는 상적인 특성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정의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상은 동사구가 가지는 상적 특성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 두 문장에서 ‘있’이 과거시제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다음의 두 문장은 상적인 차이에서 달리 해석된다. 이것을 확인해보겠다.

(17) 철수가 (그때) 행복했다.

(18) 철수가 (그때) 도착했다.

³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거는 단순히 발화시간 이전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시역을 머리에 두고 그 이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제한된 의미를 가정하지 않고 논의하겠다.

우선 두 동사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 (19) a. [[행복하] = $\lambda x \lambda e[\text{행복하}'(x)(e)]$
 b. [[도착하] = $\lambda x \lambda e[\text{도착하}'(x)(e)]$

그리고, 주어가 동사구 내로 이동하여 해석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동사구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 (20) a. [[철수가 행복하] = $\lambda e[\text{행복하}'(\text{철수})(e)]$
 b. [[철수가 도착하] = $\lambda e[\text{도착하}'(\text{철수})(e)]$

이와 같이 동사구 자체의 해석에서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두 문장의 의미는 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 (21) $\exists i[i < u \wedge \exists e[i \subseteq \tau(e) \wedge \text{행복하}'(\text{철수})(e)]]$
 (22) $\exists i[i < u \wedge \exists e[\tau(e) \subseteq i \wedge \text{도착하}'(\text{철수})(e)]]$

상태동사의 경우는 상황시간이 참조시간을 포함하지만 비상태동사는 그 반대가 성립한다. 이것은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23) 철수는 지난 여름에 행복했다.
 (24) 철수는 지난 여름에 도착했다.

첫 문장은 철수가 지난 여름 내내 행복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둘째 문장은 지난 여름의 어떤 특정한 시간에 도착했다고 이해된다.⁴ ‘있’이 과거시제라고 가정할 때,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려면 각각에 대하여 상구의 핵심어인 \emptyset_{Asp} 의 의미는 Klein(1994)의 완료와 비완료의 구분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의미로 가정하여야 한다.

- (25) i. $[\emptyset_{Asp}] = \lambda P \lambda i \exists e[\tau(e) \subseteq i \wedge P(e)]$
 ii. $[\emptyset_{Asp}] = \lambda P \lambda i \exists e[i \subseteq \tau(e) \wedge P(e)]$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어느 의미로 사용되는지는 동사구에 달려 있다.

위에서 ‘행복하’는 상태동사이고 ‘도착하’는 달성(achievement) 동사이다. Verkuyl(1972)의 분류를 따르면 이 이외에 성취(accomplishment) 동사와 활동(activity) 동사가 있다. 이들의 예를 보자.

⁴ 한 심사자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행복하다’의 경우 꼭 상황시간이 참조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i. 철수는 지난 일요일에 행복했다. 왜냐하면 그날 낮에 영희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영희가 일요일 낮에 찾아왔으므로 오후에만 행복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것은 언어의 다른 측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철수는 지난 일요일 오후에 행복했다’라고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색하다. 화자는 상황에 따라 적당한 수준의 엄밀성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6) 철수는 그때 점심식사를 했다.

(27) 철수는 그때 운동을 했다.

여기서 (26)은 위의 ‘도착하’와 같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27) 문장의 의미는 철수가 ‘그때’에 해당하는 시간의 일부 혹은 전부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에 진행된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인 상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8) 갑: 네가 초등학교 1학년때 어디 살았냐?

을: 그때 신촌에서 살았어.

(29) 갑: 네가 영화를 만났을 때 같이 운동을 했냐?

을: 그래 그때 같이 운동을 잠깐 했지. 그리고 쇼핑도 같이 했어.

첫째 예에서는 신촌에서 산 시간이 초등학교 1학년때의 기간을 포함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둘째 예에서는 영화를 만나 같이 시간을 지내는 시간의 일부 동안에 운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위의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포착할 수 있다.

(30) $[\emptyset_{Asp}] = \lambda P \lambda i \exists e [i \circ \tau(e) \wedge P(e)] (i \circ \tau(e) \text{ 은 } i \cap \tau(e) \neq \emptyset)$

즉, 사건의 시간($\tau(e)$)과 참조시간(i)이 겹치면($i \circ \tau(e)$) 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같은 영형상(zero form aspect: \emptyset_{Asp})이 동사구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어야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를 결정할 때 영형상이 아닌 상적 요소들의 해석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상구(AspP)에서 상이 영형상이 아닌 경우 그것들의 특질에 의하여 상구 전체의 상적 특질이 결정되지만, 상구가 영형상인 경우 동사구의 상적 특질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상구의 상적 특질이 상구의 핵과 동사구로부터 복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bounded]의 특질을 설정하고 상구가 이 특질에 대하여 어떤 값을 가지는지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31) a. $[AspP[\beta_{bounded}] [VP[\alpha_{bounded}] \dots] [Asp[\beta_{bounded}] \dots]]$
 b. $[AspP[\alpha_{bounded}] [VP[\alpha_{bounded}] \dots] [Asp[0_{bounded}] \dots]]$
 c. $[AspP[0_{bounded}] [VP[0_{bounded}] \dots] [Asp[0_{bounded}] \dots]]$

즉, 상구의 핵심어가 우선적으로 상구의 특질을 결정하고, 상구의 핵심어가 특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동사구의 상적 특질이 상구의 특질을 결정하고, 둘 다 상적 특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구도 별도의 상적 특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상구의 특질이 결정되면 각 값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 (32) a. $\llbracket [AspP[+bounded] \dots] \rrbracket = \lambda i \exists e \exists P [\tau(e) \subseteq i \wedge P(e)]$
 b. $\llbracket [AspP[-bounded] \dots] \rrbracket = \lambda i \exists e \exists P [i \subseteq \tau(e) \wedge P(e)]$
 c. $\llbracket [AspP[0bounded] \dots] \rrbracket = \lambda i \exists e \exists P [\tau(e) \circ i \wedge P(e)]$

그러면, 달성동사와 성취동사, 그리고 앞으로 논의할 Asp 는 [+bounded]의 특질을 가지고 있고, 상태동사와 ‘고 있’ 등의 미완료를 나타내는 상표지는 [-bounded]의 특질을, 활동동사는 [0bounded]의 특질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된다. 그리고 \emptyset_{Asp} 는 [0bounded]의 특질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위 규칙에 따라서 상구의 상적 특질이 올바르게 결정될 것이다.

- (33) a. [+bounded]: 달성동사, 성취동사, Asp
 b. [-bounded]: 상태동사, ‘고 있’
 c. [0bounded]: 활동동사, \emptyset_{Asp}

이들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4) a. $\llbracket [VP[+bounded] \text{철수가 도착하}] \emptyset_{Asp[0bounded]} \rrbracket_{AspP[+bounded]}$
 b. $\llbracket [VP[-bounded] \text{철수가 행복하}] \emptyset_{Asp[0bounded]} \rrbracket_{AspP[-bounded]}$
 c. $\llbracket [VP[0bounded] \text{철수가 운동을 하}] \emptyset_{Asp[0bounded]} \rrbracket_{AspP[0bounded]}$
 d. $\llbracket [VP[+bounded] \text{철수가 도착하}] \text{고 있} \rrbracket_{Asp[-bounded]} \rrbracket_{AspP[-bounded]}$

경우별로 예를 들면 (34a,b,c)에서처럼 상구의 핵심어가 영형상이라서 [0bounded]이면 동사구에 따라서 상구 전체의 특질이 결정되지만, (34d)에서처럼 상구의 핵심어가 [-bounded]이면 전체 상구도 [-bounded]가 되는 것이다.

2.3 영형시제 (Zero form tense) 와 그 의미

국어에서 ‘었’이 과거시제로 쓰인다면 그에 대응하는 현재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일반적으로 ‘었’에 대응하는 것으로 ‘(느)ㄴ’을 상정한다. ‘(느)ㄴ’의 성격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그 논의를 다시 하지는 않겠다.⁵

관찰적으로 ‘(느)ㄴ’의 쓰임에 대하여 Yoon (1996)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35) Yoon (1996) ‘(느)ㄴ’의 사용을 위한 조건
1. 비형용사적 동사와만 나타남.
 2. 비과거 시제와만 나타남.
 3. 제한된 문장종결어미와 제한된 연결사와만 나타남.
 4. ‘겠’이 없는 절에만 나타남.

⁵ 김동식(1988), 이홍배(1991)에서처럼 이것을 비완료성의 상표지로 간주하고, 김차균(1985, 1999), 한동완(1984, 1996) 등은 현재시제로 간주하고, 임홍빈(1984), 임홍빈 외(1995)에서는 양상적 의미인 ‘실현성’을 기본 의미 기능으로 갖지만 현재시제의 기능도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 본다.

비형용사적 동사에는 상태동사가 포함되고, 같은 상태동사라도 ‘(느)ㄴ’을 붙이는 것과 붙이지 않는 것이 있다.

- (36) a. ?? 철수는 행복하고 있다.
 b. ?? 그 계획은 예산이 모자라-고 있다.
- (37) a. 철수는 행복하-∅-다.
 b. 그 계획은 예산이 모자라-ㄴ-다.

위 두 동사 ‘행복하’와 ‘모자라’는 둘 다 상태동사라서 ‘고 있’을 사용하여 미완료성을 나타낼 수 없지만 하나는 ‘(느)ㄴ’과 쓰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점에서 ‘(느)ㄴ’ 자체는 직접적으로 상과 관계가 없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다’와 같은 일부의 종결어미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느)ㄴ’ 자체가 상이나 시제는 아니라는 가정을 한다. 이것이 시제라면 모든 술어에 대하여 사건/상황 전체가 어디에 놓이는가를 표현해야 하지만 일부의 술어들과 쓰이는 데 문제가 있다.⁶

- (38) a. 철수는 내일 공부하-ㄴ-다.
 b. 철수는 내일 도착하-ㄴ-다.
 c. 철수는 내일 편지를 쓰-ㄴ-다.
 d. ?? 철수는 내일 답을 알-ㄴ-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시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태적 요소가 관여되는 점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양태적인 면은 논의하지 않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느)ㄴ’ 자체에 어떤 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느)ㄴ’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종결어미 ‘(ㄱ)요’가 사용될 때 ‘(느)ㄴ’ 없이도 ‘(느)ㄴ’을 사용할 때와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 (39) a. 철수는 내일 공부해-요.
 b. 철수는 내일 도착해-요.
 c. 철수는 내일 편지를 쓰-어요.
 d. ?? 철수는 내일 답을 알-아요.

따라서 ‘(느)ㄴ’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형시제(zero form tense: \emptyset_T)가 있다고 가정하겠다. 즉 과거시제 ‘었_T’에 대응하는 것은 \emptyset_T 라고 가정하겠다. 그리고 ‘(느)ㄴ’은 종결어미의 일부라고 가정하겠다.

\emptyset_T 가 미완료성을 나타낸다는 김동식(1988), 이홍배(1991) 등의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을 하는 이면에는 이것이 쓰인 문장에 발화시간과 관련되어 해석될 때 미완료의 의미가 생기기 때문이다.

⁶ 상태동사들은 ‘(느)ㄴ’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때도 ‘내일’과 같은 표현과 사용되지 않는다.

i. ?? 철수는 내일 행복하다.

- (40) a. 철수는 지금 공부하-는다.
- b. 철수가 지금 도착하-는다.
- c. 철수는 지금 점심을 먹-는다.

발화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문장들이 나타내는 사건은 발화시간에 완결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전형적인 미완료를 나타내는 상표지 ‘고 있’과 함께 쓰이는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달성동사가 그렇다.

- (41) 철수가 지금 도착하고 있다.

‘고 있’을 사용했을 때는 ‘지금’의 시간 내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40b)는 철수가 ‘지금’이라는 시간 내에 종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다음 두 문장도 달리 해석된다.

- (42) a. 철수가 영희의 팔을 친다.
- b. 철수가 영희의 팔을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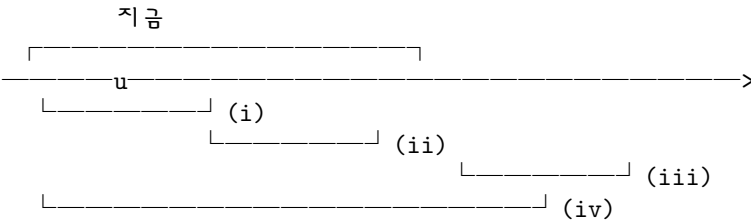
첫째 예는 철수가 영희를 한 번 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둘째 예는 계속 반복해서 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을 보면 O_T 는 동사구가 가지는 상적인 특성을 바꾸지는 않는 것 같다. 단지, 그것이 놓이는 사건시간이 ‘ $었_T$ ’과는 달리 과거에 두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43) \quad [[O_T]]^{w,u,a} = \lambda P \exists i [\neg[i < u] \wedge P(i)]$$

여기서 $\neg[i < u]$ 는 $u < i$ 일 수도 있고 $u \subseteq i$ 일 수도 있는데, $u < i$ 는 미래를 $u \subseteq i$ 는 미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다음 문장은 여러 가지로 이해된다.

- (44) a. 철수가 온다.
- b. $\exists i [\neg[i < u] \wedge \exists e [\tau(e) \subseteq i \wedge \text{오}'(\text{철수}')(e)]]$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미 발화시간에 오고 있는 중이고 곧 도착할 경우(i), 아직 출발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는 시간 내에 출발과 도착이 모두 이루어질 경우(ii), ‘지금’이 아니라 그 이후의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경우(iii), 혹은 이미 ‘지금’의 시간 내에서 시작하였고 ‘지금’ 이후에 이루어질 일(iv) 등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시간의

표현이 사용되면 이 중에 어떤 상황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가능성이 좁혀질 것이다. 여기서 어느 경우든지 동사구의 상적 특성을 바꾸지는 않는다. 단지 (i)의 경우는 이미 시작한 사건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을 나타낸다. 그래서 사건의 일회성은 계속 유지되지만 미완료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에는 (i)과 (ii) 상황만을 나타내고 (iii) 이나 (iv)와 같이 ‘지금’의 시역 밖의 상황이 관여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45) 철수가 지금 온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미 출발했거나 아직 출발하지 않았거나 관계없이 ‘지금’이라는 시간 내에 도착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팔을 치다’와 같은 동사구가 오더라도 그 동사구가 가리키는 한 사건의 미완료를 나타낼 뿐이다. 이것은 영형 시제가 반과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의 미완료의 상적인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3. 상과 ‘지금’

3.1 ‘(어-)ㅁ’과 ‘지금’

국어에서 ‘었_{Asp}’은 여러 가지 용법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46) 철수는 지금 입원했다.

이 문장은 이미 이전에 입원을 해서 지금 입원해 있는 결과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 ‘지금’의 시역 내에서 입원하는 사건이 있었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비상태동사만이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상태동사는 ‘지금’을 사용하면 ‘었’을 사용할 수 없다.

(47) ?? 철수는 지금 행복했다.

대신에 ‘지금까지’라는 표현이 사용됨으로서 ‘지금’의 시역의 일부가 관여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48) 철수는 지금까지 행복했다.

본 절에서는 우선 ‘었_{Asp}’의 첫 두 가지 용법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 ‘지금까지’는 뒤에서 다루겠다.

3.1.1 결과상태의 용법. ‘었_{Asp}’으로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대표적인 완료적 용법이다. 이런 용법의 ‘었’을 ‘었_{1Asp}’이라고 하겠다. 이것의 다른 예를 더 보자.

- (49) a. 철수는 지금 사랑에 눈이 멀었다.
- b. 철수는 지금 죽었다.
- c. 철수는 지금 부상당했다.

이들 문장이 전에 동사구가 나타내는 사건이 있었고 ‘지금’ 그 결과상태에 있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가질 때 ‘있_{1Asp}’은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상 표지인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전의 사건이 있으면 뒤이어 그 결과상태가 생기는 것은 함의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결과상태가 ‘지금’에도 성립하는 것은 함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 문장들이 주장하는 바이다.

이것을 형식적 의미로 나타낼 때, 우선 ‘지금’의 의미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단 ‘지금’은 원래 명사로서 명사구를 형성하기도 하고 전치사구로서 부가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명사 ‘지금’은 발화상황 w (기준가능세계), u (발화시간), a (화자)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발화시간 u 를 포함하는 시간의 특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⁷

$$(50) \quad \llbracket \text{지금}_N \rrbracket^{w,u,a} = \lambda i[u \subseteq i](= \text{지금}')$$

이것을 특성으로 정의하는 이유는 ‘지금’이 가리키는 시간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발화시간을 포함하는 많은 시역들이 모두 ‘지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_N’의 의미를 ‘지금’의 기본의미로 간주하고 간단히 ‘지금’으로 나타내겠다. 그러면 부가어로 사용되는 ‘지금’은 상구(AspP)에 부가되는 전치사구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의미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51) \quad \llbracket \text{지금}_{PP} \rrbracket^{w,u,a} = \lambda P \lambda i[u \subseteq i \wedge P(i)] = \lambda P \lambda i[\text{지금}'(i) \wedge P(i)]$$

즉, 상구가 시간의 특성이라고 할 때, ‘지금’은 시간의 특성 P 와 결합하여 시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것을 가정하여 (49c) 문장의 의미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52) \quad \exists i \exists P \exists e \exists e' [u \subseteq i \wedge \text{지금}'(i) \wedge \text{부상당하}'(\text{철수}')(e') \wedge P(e) \wedge \tau(e') < i \wedge i \subseteq \tau(e)] \quad (\text{단, } \exists e' [\text{부상당하}'(\text{철수}')(e')] \models \exists e [P(e)])$$

여기서 ‘지금’의 의미가 기여하는 바는 전혀 없으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있’이 시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3.1.2 최근의 사건 용법. ‘있’이 현저한 결과상태를 가지지 않는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쓰이면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용법의 ‘있’은 ‘있₂’라고 하겠다. 이때 ‘(어-)ㅅ’의 사용은 발화시간과 관계가 있다.

- (53) a. 철수가 지금 도착했다.
b. 철수가 지금 도착한다.

여기서 (53a)는 ‘있₂’을 사용하였으며 도착한 시간이 발화시간보다 앞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3b)는 도착하는 시간이 발화시간 이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있₂’이 발화시간과 선후관계에 따라 사용되므로 시제표지일지 모른다는

⁷ 해석은 항상 w, u, a 에 입각해서 이루어지지만 필요한 경우에만 이것을 쓰겠다.

생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지인지 시제인지에 따라서 의미유형이 달라지므로 이것을 먼저 정해야 할 것이다. 각각의 가능성을 살펴서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었2**’이 시제?. ‘**었2**’이 시제라면 상구의 핵은 형태소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영형상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것의 의미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동사구가 나타내는 사건/상태의 상적 특징, 즉 [+/-/0bounded]에 따라 달라진다.

$$(54) \quad [\emptyset_{Asp}] =$$

- (i) $\lambda P \lambda i \exists e [\tau(e) \subseteq i \wedge P(e)];$
- (ii) $\lambda P \lambda i \exists e [i \subseteq \tau(e) \wedge P(e)];$
- (iii) $\lambda P \lambda i \exists e [i \circ \tau(e) \wedge P(e)]$

이중에서 ‘도착하+ \emptyset_{Asp} ’는 [+bounded]에 속하므로 의미 (i)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55) \quad \llbracket \text{철수는 지금 도착했다} \rrbracket^{w,u,a}$$

$$= \exists i [i < u \wedge \text{지금}'(i) \wedge \exists e [\tau(e) \subseteq i \wedge \text{도착하}'(\text{철수}'(e))]]$$

그런데 이것은 ‘지금’이라는 시간 i가 발화시간 이전이 되므로 올바른 의미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었2**’을 시제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제의 의미를 달리 정의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었2**’가 상표지?. ‘**었2**’가 상표지라면 시제는 영형태(zero form)로 있다고 가정할 수 있고 그 의미는 앞에서 정의한 대로 비과거로 해석된다: $\llbracket \emptyset_T \rrbracket^{w,u,a} = \lambda P \exists i' [\neg [i' < u] \wedge P(i')]$. 그리고, ‘**었2**’을 통하여 발화시간 이전을 가리켜야 하는데, 다음의 두 의미중 어느 것을 가정하여도 원하는 의미를 도출할 수 없다.

$$(56) \quad \llbracket \text{었2} \rrbracket =$$

- (i) $\lambda P \lambda i \exists e [\tau(e) < i \wedge P(e)];$
- (ii) $\lambda P \lambda i \exists e [\tau(e) \subseteq i \wedge P(e)]$

우선 (i)의 의미를 가정하면 다음의 의미가 도출된다.

$$(57) \quad \llbracket \text{철수는 지금 도착했다} \rrbracket$$

$$= \exists i [\neg [i < u] \wedge \text{지금}'(i) \wedge \exists e [\tau(e) < i \wedge \text{도착하}'(\text{철수}'(e))]]$$

철수가 도착한 시간이 ‘지금’이라는 시간 이전에 일어난 것이므로 과거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문장이어야 하지만 원래 문장의 의미는 ‘지금’의 시역 내에서 도착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므로 원래 문장의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다.

‘**었2**’이 상표지로서 (ii)의 의미로 해석된다면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58) \quad \llbracket \text{철수는 지금 도착했다} \rrbracket^{w,u,a} = \exists i[\neg[i < u] \wedge \text{지금}'(i) \wedge \exists e[\tau(e) \subseteq i \wedge \text{도착하}'(\text{철수}')(e)]]$$

그런데, 이와 같이 해석하면 도착한 사건 e 가 발화시간 u 보다 선행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것 역시 원하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59) \quad \llbracket \text{철수는 지금 도착했다} \rrbracket^{w,u,a} = \exists i \exists i'[i' < u \wedge \text{지금}'(i) \wedge i' \subseteq i \wedge \exists e[\tau(e) \subseteq i' \wedge \text{도착하}'(\text{철수}')(e)]]$$

이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는 시간 안에 어떤 작은 시간이 있고 그것이 발화시간보다 이전이고 그 시간 내에서 도착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가져야 하므로 이것을 얻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제안 1: ‘지금’의 의미 수정. ‘있2’가 과거시제라고 가정할 때, ‘지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면 위에 원하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⁸

$$(60) \quad \llbracket \text{지금}_{PP} \rrbracket^{w,u,a} = \lambda P \lambda i' \exists i[\text{지금}'(i) \wedge i' \subseteq i \wedge P(i')]$$

$$(61) \quad \text{i. } \llbracket \text{철수가 도착하} \rrbracket = \lambda e[\text{도착하}'(\text{철수}')(e)]$$

$$\text{ii. } \llbracket \text{철수가 도착하-}\emptyset_{A_{sp}} \rrbracket = \lambda i \exists e[\tau(e) \subseteq i \wedge \text{도착하}'(\text{철수}')(e)]$$

$$\text{iii. } \llbracket \text{지금 철수가 도착하-}\emptyset_{A_{sp}} \rrbracket^{w,u,a} = \lambda i' \exists i[\text{지금}'(i) \wedge i' \subseteq i \wedge \exists e[\tau(e) \subseteq i' \wedge \text{도착하}'(\text{철수}')(e)]]$$

$$\text{iv. } \llbracket \text{지금 철수가 도착하-}\emptyset_{A_{sp}}\text{-있}_T\text{-다} \rrbracket^{w,u,a} = \exists i' \exists i[i' < u \wedge \text{지금}'(i) \wedge i' \subseteq i \wedge \exists e[\tau(e) \subseteq i' \wedge \text{도착하}'(\text{철수}')(e)]]$$

그러나, ‘있2’을 과거시제로 보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과거이면 과거 시점에 관한 문장이어야 하나 위 문장은 ‘있2’을 사용하였지만 ‘지금’에 관한 문장이다. 이런 점을 제외하고는 문장의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안 2: ‘있2’의 의미 수정. ‘있2’이 상이라고 가정할 때, 상으로서 ‘있2’의 의미를 통하여 사건/상황이 발화시간 이전이라는 것을 포착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상은 사건/상황의 특성으로부터 시간의 특성을 도출하기 때문에 상을 해석하는 시점에서 발화시간이 관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발화시간은 발화상황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있2’의 의미 해석은 발화상황 $\langle w, u, a \rangle$ 에 따라 해석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⁸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오늘’을 해석하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

$$\text{i. } \llbracket \text{오늘}_{PP} \rrbracket^{w,u,a} = \lambda P \lambda i' \exists i[\text{오늘}'(i) \wedge i' \subseteq i \wedge P(i')]$$

$$\text{ii. } \llbracket \text{오늘 비가 오고 있다} \rrbracket^{w,u,a} = \exists i \exists i' \exists e \exists x[\text{오늘}'(i) \wedge u \subseteq i' \subseteq i \wedge i' \subseteq \tau(e) \wedge \text{비}'(x) \wedge \text{오}'(e)(x)]$$

‘오늘’이라고 할 때 ‘오늘’ 내내 비가 오는 것은 아니다. 아직 ‘오늘’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말하는 것일 것이고, 발화시점에서 비가 오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오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비가 오고 있는 것도 아니다.

- (62) $[[\text{있}_{2\text{Asp}}]^{w,u,a} = \lambda P \lambda i \exists i' \exists e [i' \subseteq i \wedge i' < u \wedge \tau(e) \subseteq i' \wedge P(e)]$
- (63) i. $[[\text{철수가 도착하}] = \lambda e [\text{도착하}'(\text{철수})(e)]$
- ii. $[[\text{철수가 도착하-있}_{2\text{Asp}}] = \lambda i \exists i' \exists e [i' \subseteq i \wedge i' < u \wedge \tau(e) \subseteq i' \wedge \text{도착하}'(\text{철수})(e)]$
- iii. $[[\text{지금 철수가 도착하-있}_{2\text{Asp}}] = \lambda i [u \subseteq i \wedge \exists i' \exists e [i' \subseteq i \wedge i' < u \wedge \tau(e) \subseteq i' \wedge \text{도착하}'(\text{철수})(e)]]$
- iv. $[[\text{지금 철수가 도착하-있}_{2\text{Asp}-\emptyset T\text{-다}}] = \exists i [\neg [i < u] \wedge u \subseteq i \wedge \exists i' \exists e [i' \subseteq i \wedge i' < u \wedge \tau(e) \subseteq i' \wedge \text{도착하}'(\text{철수})(e)]]$

이것 역시 ‘지금’의 시역 내의 어떤 시간이 발화시간 이전이며 그 시간 내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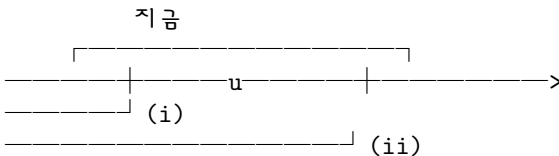
이와 같이 (53a) 문장에서의 ‘있’을 시제로 간주하거나 상으로 간주하거나 동일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올바른 해석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적 현상을 더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소절에서 ‘고 있’의 의미를 고려하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2 ‘지금까지’와 ‘있’

‘지금’의 의미는 시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자체는 시역을 가지는 이중적 성격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라는 표현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우선 ‘지금까지’라는 표현에서 ‘지금’은 명사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부가어로 사용된 것과는 구분되어야 하고, 또한 ‘지금까지’에서의 ‘까지’는 시점을 보어로 취하는 표현이므로 ‘지금’이 한 시점을 가리켜야 한다. 하지만 그 자체는 시역을 가리키므로 시역으로부터 시점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5)에서 ‘오늘’이 시역을 가지지만, ‘까지’와 결합하면 어떤 시점을 가리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있’의 유무에 따라서 ‘지금’에서 가리키는 시점이 달라진다.

- (64) 지금까지 비가 내린다.
- (65) 지금까지 비가 내렸다.
- (66) 철수는 지금까지 행복하다.
- (67) 철수는 지금까지 행복했다.



‘있’이 없으면 (i) 처럼 발화시간 이전의 어떤 시점까지이고 ‘있’이 쓰이지 않으면 (ii) 처럼 발화시간 이후까지를 가리킨다. 따라서 여기서도 ‘있’이 시제인지, 상인지하는

문제가 관여된다.⁹

3.2.1 시역에서 시점의 결정. de Swart(1996)은 until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68) \text{ For } \gamma: \lambda s[P(s) \wedge \exists tAT(s, t)] \text{ and } \delta: \lambda t'Q(t'): \\ \llbracket \text{until}(\gamma, \delta) \rrbracket = \lambda s \exists t \exists t' \exists t'' [P(s) \wedge AT(s, t'') \wedge Q(t') \wedge t \subseteq t'' \wedge \\ \forall t''' [[t \leq t''' < t'] \rightarrow \exists s' [s' \sqsubseteq s \wedge P(s') \wedge AT(s', t''')]]]$$

이를 보면 until구는 동사구에 부가어로 사용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69) \llbracket {}_{VP} [{}_{VP} P] \text{ until } Q \rrbracket \text{ 'Q 때까지 P 하다'}$$

그래서 t 이후 Q인 t' 시각까지의 모든 시간에서 P인 s의 하위상황 s'이 존재한다는 것이 의미이다. 우리 논의에 더욱 중요한 것은 until이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과 쓰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시점과 잘 쓰인다.

$$(70) \text{ The princess slept until nine o'clock.} \\ \exists s \exists t \exists t' \exists t'' [\text{Sleep}(pr, s) \wedge AT(s, t'') \wedge t'' < n \wedge \text{Nine}(t') \wedge t \subseteq t'' \wedge \\ \forall t''' [[t \leq t''' < t'] \rightarrow \exists s' [s' \sqsubseteq s \wedge \text{Sleep}(\text{princess}, s') \wedge AT(s', t''')]]]$$

시점의 표현과 쓰이는 ‘까지’를 ‘까지1’이라고 할 때, de Swart(1996)의 형식적 의미를 고려하여 본 논문의 표기방식을 따라 ‘까지1’의 의미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71) \llbracket \text{까지1} \rrbracket = \lambda P \lambda Q \lambda e \exists i \exists i' [Q(e) \wedge P(i') \wedge i \subseteq \tau(e) \wedge \\ \forall i'' [[i \leq i'' \leq i'] \rightarrow \exists e' [e' \sqsubseteq e \wedge Q(e') \wedge \tau(e') = i'']]]$$

이것은 ‘P인 i'까지 Q인 e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할 때의 ‘까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의 하위상황인 e'가 i'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until과의 차이점은 영어에서는 until은 마지막 시점은 포함되지 않는데 한국어에서 ‘까지’는 마지막 시점까지 포함된다는 점이다.

⁹ ‘까지’가 자연스럽게 쓰려면 사건이 시역에 걸쳐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 시점에 일어난다고 간주될 수 있는 성취동사(achievement verbs)는 사용될 수 없다.

i. ?? 지금까지 철수가 도착했다/도착한다.

이와 같이 ‘까지’라는 말 자체가 시역을 나타내야 하므로 그와 함께 사용되는 술어에 대한 제약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상적인 요소와 관계가 있다. 만약 주어 등이 수량을 나타내어 사건이 시역을 요하는 경우에 문장들이 좋아질 수 있다.

ii. 지금까지 사람들이 도착했다.

iii. 지금까지 사람들이 도착한다.

(72) John will not be here untill Thursday.

(73) 철수는 목요일까지 여기에 없을 것이다.

이 문장에서 John은 목요일에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만 여기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반면에 국어에서는 철수가 목요일에도 여기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래서 $i'' \leq i'$ 의 조건이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until 다음에는 시점이 나와야 정상이나 ‘지금’이라고 하면 시역을 나타낸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라는 표현이 ‘있’과 함께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발화시간 이전이나 이후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지금’은 발화시간을 포함하면서 발화시간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이후도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까지’가 시역을 가지는 표현과 결합했을 때의 의미를 가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까지2’라고 하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74) \quad \llbracket \text{까지}2 \rrbracket = \lambda P \lambda Q \lambda e \exists i \exists i' \exists i'' [Q(e) \wedge P(i') \wedge i'' \in i' \wedge i \subseteq \tau(e) \wedge \forall i'' [i \leq i'' \leq i'''] \rightarrow \exists e' [e' \subseteq e \wedge Q(e') \wedge \tau(e') = i''']]$$

‘까지2’는 시역의 논항 i' 를 취하여 그 안의 한 시점 i'' 을 결정하는 것이고 시각이 결정되면 나머지는 ‘까지1’의 의미와 동일하다.

‘까지’와 결합하는 ‘지금’은 상구(AspP)의 부가어인 ‘지금_{PP}’과는 달리 de Swart를 따라 $\langle e, t \rangle$ 의 의미유형을 가지는 명사로 이루어진 명사구라고 가정한다. 명사 ‘지금’의 의미는 이미 앞에서 ‘지금’으로 나타내기로 하였다.¹⁰ 그리고, 부가어로 쓰이는 경우 두 가지 의미를 주었는데, 그에 대응하여 두 개의 ‘지금까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5) \quad \llbracket \text{지금-까지}2 \rrbracket^{w, u, a} = \begin{array}{l} \text{i. } \lambda Q \lambda e \exists i \exists i' \exists i'' [Q(e) \wedge \text{지금}'(i') \wedge i'' \in i' \wedge i \subseteq \tau(e) \wedge \\ \forall i'' [i \leq i'' \leq i'''] \rightarrow \exists e' [e' \subseteq e \wedge Q(e') \wedge \tau(e') = i''']] \\ \text{ii. } \lambda Q \lambda e \exists i \exists i' \exists i'' \exists i''' [Q(e) \wedge \text{지금}'(i') \wedge i'' \subseteq i' \wedge i''' \in i'' \wedge i \subseteq \tau(e) \wedge \\ \forall i'' [i \leq i'' \leq i'''] \rightarrow \exists e' [e' \subseteq e \wedge Q(e') \wedge \tau(e') = i''']] \end{array}$$

여기서 첫째 의미는 ‘있’이 상으로 사용된 경우의 의미이고 둘째 의미는 ‘있’이 상표지인 경우의 의미이다. 그러나 이 두 의미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지금’의 시역 내에서 한 시점을 정하기만 하면 되므로 ‘지금’에 속하는 시점이나 ‘지금’에 속하는 시역의 부분집합에 속하는 시점이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와 쓰이는 ‘있’이 시제인지 상인지에 대하여 논의해보자.

¹⁰ ‘지금’이 $\langle e, t \rangle$ 유형의 명사이면, 이것이 명사구가 정의되고 ‘까지’와 결합하는 과정이 명확해야 하나 de Swart는 ‘까지’와 결합하는 명사구를 특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같은 가정을 하겠다.

3.2.2 ‘있’이 시제?. ‘있’이 시제라고 가정하면 위 (65)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 (76) i. $[[\text{비가 내리}] = \lambda e \exists x [\text{비}'(x) \wedge \text{내리}'(x)(e)]$
 ii. $[[\text{지금까지 비가 내리}] = \lambda e \exists i \exists i' \exists i'' [[\exists x [\text{비}'(x) \wedge \text{내리}'(x)(e)] \wedge \text{지금}'(i') \wedge i'' \in i' \wedge i \subseteq \tau(e) \wedge \forall i'' [[i \leq i'' \leq i'''] \rightarrow \exists e' [e' \subseteq e \wedge Q(e') \wedge \tau(e') = i'']]]]$
 iii. $[[\text{지금까지 비가 내리-}\emptyset_{\text{Asp}}] = \lambda i'''' \exists e [\tau(e) \subseteq i'''' \wedge \exists i \exists i' \exists i'' [[\exists x [\text{비}'(x) \wedge \text{내리}'(x)(e)] \wedge \text{지금}'(i') \wedge i'' \in i' \wedge i \subseteq \tau(e) \wedge \forall i'' [[i \leq i'' \leq i'''] \rightarrow \exists e' [e' \subseteq e \wedge Q(e') \wedge \tau(e') = i'']]]]$
 iv. $[[\text{지금까지 비가 내리-}\emptyset_{\text{Asp-있}}\text{-다}] = \exists i'''' [i'''' < u \wedge \exists e [\tau(e) \subseteq i'''' \wedge \exists i \exists i' \exists i'' [[\exists x [\text{비}'(x) \wedge \text{내리}'(x)(e)] \wedge \text{지금}'(i') \wedge i'' \in i' \wedge i \subseteq \tau(e) \wedge \forall i'' [[i \leq i'' \leq i'''] \rightarrow \exists e' [e' \subseteq e \wedge Q(e') \wedge \tau(e') = i'']]]]$

발화시간 이전의 시간 i'''' 에 상황 e 가 있고 그 상황이 있는 시역 i 에서부터 지금의 시역 i' 에 속하는 i'' 까지 계속해서 e 의 하위상황 e' 가 성립한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고 단지, i 가 지금의 시역 i' 보다 선행한다는 조건이 필요한데, 이것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de Swart의 ‘까지’의 의미 정의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여기서 는 문제시하지 않겠다.¹¹

3.2.3 ‘있’이 상표지?. ‘있’이 상이라고 가정하면 ‘있’은 앞에서 논의한 ‘있2’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위 (65)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 (77) i. $[[\text{비가 내리}] = \lambda e \exists x [\text{비}'(x) \wedge \text{내리}'(x)(e)]$
 ii. $[[\text{지금까지 비가 내리}]^{w,u,a} = \lambda e \exists i \exists i' \exists i'' [[\text{비가-내리}(e) \wedge \text{지금}'(i') \wedge i'' \in i' \wedge i \subseteq \tau(e) \wedge \forall i'' [[i \leq i'' \leq i'''] \rightarrow \exists e' [e' \subseteq e \wedge \text{비가-내리}(e') \wedge \tau(e') = i'']]]]$
 iii. $[[\text{지금까지 비가 내리-있}_{\text{Asp}}]^{w,u,a} = \lambda i \exists i' \exists e [i' \subseteq i \wedge i' < u \wedge \tau(e) \subseteq i' \wedge \exists i'' \exists i''' \exists i'''' [[\text{비가-내리}(e) \wedge \text{지금}'(i''') \wedge i'' \in i'' \wedge i'''' \subseteq \tau(e) \wedge \forall i'''' [[i'''' \leq i'' \leq i'''''] \rightarrow \exists e' [e' \subseteq e \wedge \text{비가-내리}(e') \wedge \tau(e') = i''']]]]$
 iv. $[[\text{지금까지 비가 내리-있}_{\text{Asp-}\emptyset}\text{-다}]^{w,u,a} = \exists i [\neg [i < u] \wedge \exists i' \exists e [i' \subseteq i \wedge i' < u \wedge \tau(e) \subseteq i' \wedge \exists i'' \exists i''' \exists i'''' [[\text{비가-내리}(e) \wedge \text{지금}'(i''') \wedge i'' \in i'' \wedge i'''' \subseteq \tau(e) \wedge \forall i'''' [[i'''' \leq i'' \leq i'''''] \rightarrow \exists e' [e' \subseteq e \wedge \text{비가-내리}(e') \wedge \tau(e') = i''']]]]$

¹¹ 다른 문제는 상황 e 가 성립하는 시역 i'''' 가 ‘지금’의 시역 i' 보다 선행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조건을 반영한다면 e 상황은 ‘지금’의 시역에 속하는 i'' 까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올바른 의미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한 과거의 의미가 상으로 쓰이는 ‘있’을 대체하면서 ‘지금’의 의미를 일관성있게 정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과거의 의미를 약화시켰다.

(e')=i'']]
 (i와 i'' 는 같은 ‘지금’ 이라고 가정할 수 있음.)

여기서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i와 i'' 은 같은 시역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의미표현에서는 i'''' 가 발화시점 이전의 어떤 시역이고 그 이후 ‘지금’의 시역에 속하는 시점 i'''' 까지 상황 e가 계속된다는 의미를 잘 포착한다. 그리고 시제가 현재 이므로 과거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은 아무 영향이 없다. 이런 점에서 본 문장에서의 ‘있’은 상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Yoon (1996)이 지적하였듯이 국어에서 ‘까지’는 또다른 의미가 있다. 이것을 ‘까지3’이라고 하자. 이것은 항상 ‘까지’ 앞에 오는 표현이 가리키는 시역의 마지막까지로 이해되는 것 같다.

(78) 철수는 오늘까지 숙제를 끝내라.

이 문장은 오늘 이전에도 계속 숙제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단지 오늘이 끝나기 전에 숙제를 끝나는 사건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용법에서는 ‘지금’이 항상 ‘지금’의 마지막 시간까지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 같다. 그래서 다음의 예에서 ‘지금까지’와 ‘있’ 혹은 ‘-라’ 등과 같이 쓰이는 것이 어색하다.

(79) ?? 철수는 지금까지 숙제를 끝냈다.

(80) ?? 철수는 지금까지 숙제를 끝내라.

즉, ‘지금까지’는 ‘지금’의 끝을 나타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건이 완료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발화시간을 포함하는 더 긴 시간이므로 발화시간 이후의 시간도 포함하게 된다. 그런데, 그 시역에서 사건이 완료된다면 발화시간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 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결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전을 나타내는 ‘있’이든 이후를 나타내는 ‘-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까지3’와 ‘지금-까지3’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¹²

¹² Yoon (1996)의 ‘까지3’의 의미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수정을 하였다.

$$i. \lambda t_0 \lambda P \lambda e_1 [P(e_1) \wedge \exists t_1 [t_0 \in F(t_1) \wedge e_1 \leq t_1 \wedge (\forall e_2 [[e_2 \leq e_1 \wedge P(e_2)] \rightarrow e_2 = e_1]])]$$

여기서 F는 어떤 시간을 받아서 그것의 마지막 시역의 집합을 내놓는 함수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leq 에 의하여 포착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사건과 시간이 직접적으로 선후관계에 관여되는 것은 선후관계를 너무 느슨하게 정의한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사건이 유일하게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단언의 일부로 있으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다음의 예를 보자.

ii. 철수는 1년 후까지 소설을 써야 한다.

이 문장은 일반적으로 소설 한 편을 써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소설을 두 편 쓰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소설이라는 것이 양화사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예도 마찬가지로 있다.

- (81) a. $\llbracket \text{까지3} \rrbracket = \lambda P \lambda Q \lambda e \exists i [P(i) \wedge Q(e) \wedge \tau(e) \leq i]$
 b. $\llbracket \text{지금-까지3} \rrbracket^{w,u,a} = \lambda Q \lambda e \exists i [\text{지금}'(i) \wedge Q(e) \wedge \tau(e) \leq i]$

사건의 시간 $\tau(e)$ 가 ‘지금’의 시역 i 보다 뒤가 되지 않으므로 i 와 겹칠 수도 있고 i 보다 선행할 수도 있다. i 와 겹친다고 하더라도 발화시간보다 앞설 수도 있고 발화시간 이후일 수도 있다. 이것은 왜 ‘지금-까지3’이 ‘있’과 쓰이지 않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지금’이 발화시간을 포함하므로 발화시간 이후의 시간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끝나는 시점이 발화시간 이전이면 ‘있’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시점이 발화시간 이후이면 ‘있’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3’라는 표현을 이러한 술어와 함께 제대로 쓰려고 하여도 ‘있’을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 정할 수 없다. 따라서 문장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4. ‘고 있’과 ‘지금’

‘고 있’은 미완료(진행)의 의미를 지니는 국어에서의 대표적인 표지이다. 구체적으로 예문을 보자.

- (82)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

Klein(1994)을 따라 미완료인 ‘고 있’의 의미는 $[-\text{bounded}]$ 의 자질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것이 상구의 특질을 결정한다. 그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83) $\llbracket \text{고 있} \rrbracket = (i) \lambda P \lambda i \exists e [i \subseteq \tau(e) \wedge P(e)]$

즉, 시간 i 가 주어졌을 때, 사건 시간 $\tau(e)$ 은 i 보다 더 큰 시역에 걸쳐서 사건 e 가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런 이유때문에 사건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달성동사가 올 경우 i 보다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야 하므로 반복의 의미가 생기든지 과정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착하고 있다’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팔을 치고 있다’는 반복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적인 요소에 의하여 동사구의 의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¹³

앞에서 ‘지금’과 함께 쓰인 ‘있’이 시제나 상이냐에 따라서 ‘지금’을 두 가지로 해석하였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84) i. $\llbracket \text{지금}_{PP} \rrbracket^{w,u,a} = \lambda P \lambda i [u \subseteq i \wedge P(i)] (= (51))$
 ii. $\llbracket \text{지금}_{PP} \rrbracket^{w,u,a} = \lambda P \lambda i' \exists i [\text{지금}'(i) \wedge i' \subseteq i \wedge P(i')] (= (60))$

이 두 의미에 근거하여 (82)의 의미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iii. 철수는 3시까지 영회를 만나야 한다.

만약 철수가 영회를 3시까지 한 번만 만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유일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¹³ 이것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보려면 de Swart(1998) 참조.

- (85) i. $\llbracket \text{비가 오고 있} \rrbracket = \lambda i \exists e [i \subseteq \tau(e) \wedge \exists x [\text{비}'(x) \wedge \text{오}'(e)(x)]]$
- ii. $\exists i [\neg [i < u] \wedge \text{지금}'(i) \wedge \exists e [i \subseteq \tau(e) \wedge \exists x [\text{비}'(x) \wedge \text{오}'(e)(x)]]]$
 $= \exists i \exists e \exists x [\neg [i < u] \wedge \text{지금}'(i) \wedge i \subseteq \tau(e) \wedge \text{비}'(x) \wedge \text{오}'(e)(x)]$
- iii. $\exists i' [u \subseteq i' \wedge \exists i [\text{지금}'(i) \wedge i' \subseteq i \wedge \exists e [i' \subseteq \tau(e) \wedge \exists x [\text{비}'(x) \wedge \text{오}'(e)(x)]]]]$
 $= \exists i \exists i' \exists e \exists x [u \subseteq i' \wedge \text{지금}'(i) \wedge i' \subseteq i \wedge i' \subseteq \tau(e) \wedge \text{비}'(x) \wedge \text{오}'(e)(x)]$

첫째 의미는 ‘지금’이라는 시간 내내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둘째의 의미는 ‘지금’이라는 시간 중에 발화시간을 포함하는 어떤 일부의 시역에서 비가 내내 오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우리의 직관은 비가 오는 상황이 ‘지금’의 시역의 일부에서가 아니라 ‘지금’의 시역 내내 비가 와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의미는 (i) 과 같은 것이다. 위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고 있’의 의미에서 사건/상황시간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참조시간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i \subseteq \tau(e)$ 때문이다. 그리고, 이전의 논의로 돌아 가서, ‘지금’은 단순히 $\lambda P \lambda i [u \subseteq i \wedge P(i)]$ 로 가정하고 달성동사와 ‘있’이 쓰였을 때 ‘있’을 상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데, ‘고 있’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

- (86) 철수는 지금 문을 닫고 있다.

이 문장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위와 같이 문을 닫는 행위 도중에 있고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황을 나타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철수가 이미 문을 닫혀 있고 그런 상태로 있는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다.¹⁴ 둘째 해석을 가지고 오는 것은 ‘고 있’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87) $\llbracket \text{고 있} \rrbracket = (\text{ii}) \lambda Q \lambda i \exists P \exists e \exists e' [Q(e') \wedge P(e) \wedge \tau(e') < i \wedge i \subseteq \tau(e)]$
 (단, $Q(e') \models P(e)$)

즉, P 라는 상황을 야기하는 Q 라는 상황이 선행하고 그 결과 주어진 시간 내내 P 라는 결과상황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그 결과상황이 주어지는 시간 i 즉, ‘지금’ 내내 성립한다는 것은 ‘고 있’의 의미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위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88) a. $\exists i \exists e \exists x [\neg [i < u] \wedge \text{지금}'(i) \wedge i \subseteq \tau(e) \wedge \text{문}'(x) \wedge \text{닫}'(x)(\text{철수}')(e)]$
- b. $\exists i \exists P \exists e \exists e' \exists x [\neg [i < u] \wedge \text{지금}'(i) \wedge \text{문}'(x) \wedge \text{닫}'(x)(\text{철수}')(e') \wedge P(e) \wedge \tau(e') < i \wedge i \subseteq \tau(e)]$
 (단, $\exists x \exists e' [\text{문}'(x) \wedge \text{닫}'(x)(\text{철수}')(e')] \models P(e)$)

여기서는 문을 닫은 후의 결과상황이 ‘지금’이라는 시간 내내 성립하는 것을 나타낸다.

‘고 있’이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용법의 의미는 ‘ 있_{1Asp} ’이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있’은 되지만 ‘고 있’은 안되는 경우가 있다.

¹⁴ 국어에서 ‘어 있’도 ‘고 있’의 두번째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둘 사이에 약간의 의미적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Yoon (1996) 참조.

- (89) 철수가 지금 학교에 갔다.
 (90) 철수가 지금 학교에 가고 있다.

첫 문장은 결과상태를 나타낼 수 있지만 둘째 문장은 그런 해석은 가지지 않는다. 이것을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두 표현이 의미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이 논의는 하지 않겠다.

5. 결론

‘지금’이라는 표현은 내적으로는 시역을 가지는 표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외적으로는 시점을 나타내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점에서 ‘오늘’과 같은 표현과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과는 달리 ‘지금’은 굳이 쓰지 않더라도 시제가 있을 경우 그 기준이 현재인 경우 그 현재의 시간을 나타낸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잉여적으로 쓰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잉여적이 아닌 경우 이것의 의미적 기여에 따라서 사건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이 여러 가지 상적인 표현들과 사용될 때 어떻게 시역적인 특성과 시점적인 특성들이 실현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금’이 시제와 여러 가지 상적인 의미와의 상호작용에서 우리가 원하는 의미를 포착하기 위하여 일관되게 정의되려면 $\lambda P \lambda i [u \subseteq i \wedge P(i)]$ 와 같이 정의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시제와 상의 여러 의미를 함께 논의하였다. 시제나 상적인 구체적인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neg[i < u]$ 라는 관계가 상적인 특성과 시제적 특성을 모두 가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국어에서 ‘었’을 사용하면 항상 발화 시간 이전에 사건/상황이 완료된 상황을 타나내고, ‘었’을 시제와 상의 이중적인 쓰임이 있다고 가정하고 각각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설명하였다. 특히 상적인 표현으로 취급할 때도 몇 가지 용법이 있는데,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지금’이 시역적인 특성을 통하여 결과상태가 ‘지금’의 시간 내내 지속되는 것을 나타내거나 ‘지금’의 시역 내에서 발화시간 이전의 어떤 일부의 시간을 가리키게 되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고 있’은 항상 $i \subseteq \tau(e)$ 의 관계로 ‘지금’이라는 시역에 걸쳐서 사건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은 ‘지금’이 시역을 가지는 표현이므로 시역 내내 상황이 이루어지려면 반복의 의미를 가지는 등의 상적인 변화를 통하여 ‘고 있’의 의미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영형시제가 만드는 미완료의 의미와 차이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까지’가 시점을 요구하므로 ‘까지’의 의미에 이를 반영하여 ‘지금’의 시역에서 특정 시점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이 시역의 의미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시제와 상적인 표현들과 사용되면서 원하는 의미로 모두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References

고영근. 2004.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 김동식. 1988. 선어말어미 '-느-'에 대하여, *언어* 13-1, 171-202.
- 김차균. 1999. *우리말의 시제 구조와 상 인식*. 태학사.
- 노대규. 1979. 상황소 (deixis)와 한국어 시제, *문법연구* 4. 문법연구회.
- 서정수. 1976. 국어 시상 형태의 의미 분석 연구,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 염재일. 2010. '었'의 중의성. *언어학* 58, 237-264.
- 이기용. 1980. 몬테규 문법에 입각한 한국어 시제의 분석. *언어* 5-1, 137-181.
- 이기용. 1976. 시간론: '지금'의 의미, *어학연구* 12-2. 서울대 어학연구소, 151-174.
- 임홍빈. 1984. 선어말 -느-와 실현성의 양상, *목천유창균박사 환갑기념논문집*.
- 임홍빈. · 장소원 1995.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정문수. 1981. 한국어 풀이씨의 상적속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한동완. 1984. 현대국어 시제의 체계적 연구, *한국어연구* 6. 서강대 국문과.
- 한동완. 1996. *국어의 시제 연구*. 태학사.
- Heim, Irene. 1994. Comments on Abusch's theory of tense. In *Ellipsis, tense, and Questions*. H. Kamp (ed.), Amsterdam: University of Amsterdam.
- Klein, Wolfgang. 1994. *Time in Language*. Routledge, London.
- Kratzer, Angelika. 1998. More structural analogies between pronouns and tenses. *SALT* 8. MIT.
- Krifka, Manfred. 1986. *Nominalreferenz und Zeitkonstitution. Zur Semantik von Massentermen, Pluraltermen und Aktionsart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unich.
- Partee, Barbara. 1984. Nominal and Temporal Anaphora. *Linguistics and Philosophy* 7, 243—286.
- de Swart, Henriette. 1996. *Journal of Semantics* 13:221-263.
- de Swart, Henriette. 1998. Aspect shift and coercio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6:347-385.
- Yang, Jeong-Seok. 2008. The Morphosyntax of Temporal Elements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3-4, 693-722.
- Yeom, Jae-Il. 2010. Semantics and pragmatics of '-es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46-2, 199-263.
- Yoon, Jae-Hak. 1996. *Temporal Adverbials and Aktionsarten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Verkuyl, Henk. 1972. *On the Compositional Nature of the Aspects*. Dordrecht: Reidel Publishing Company.

접수 일자: 2012년 11월 02일

게재 결정: 2012년 12월 15일